



제6강 - 육체여, 너는 떨고 있는가?

이 동 용 (철학아카데미)

1. 허무주의 철학이 즐거운 이유

인간의 두려움은 이성이 형성되면서 생겨난다. 이성적 존재는 두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는 두려움을 모른다. 순간적인 반응만 보일 뿐이다. 드넓은 초원 위에서 쉬고 있는 소는 두려움을 모른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피곤하면 쉬면 된다. 동물에겐 이성이 없어 시간 개념도 없다. 시간을 모르니 저축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낀다. 과거가 없으니 양심도 없고 미래가 없으니 이유 없는 두려움도 없다. 그런데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다. 이성적 존재라서 그런 것이다. 물론 동물도 겁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물의 감각은 순간 속에 있다. 이에 반해 인간은 순간을 직시할 능력이 없다. 이성은 늘 과거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이성은 늘 내용보다는 형식이나 원리에 집착하게 한다. 이성은 늘 논리에 얽매이게 한다. 그 논리가 빚어내는 내용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이 겁을 먹는 상황은 동물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동물에게도 판단 능력이란 게 있다. 어린 강아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밀면 안 떨어지려고 버틴다. 떨어지면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도 낚선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쏜살 같이 이동한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달리던 말도 장애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넘을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한다. 장애물 앞에서 급정지하는 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다. 반복된 훈련에 의해 어떤 특정 행동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행동을 바탕으로 하여 또 다른 행동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이성이 없어서 그런 거다.

사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만 이해를 해도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다. 엽제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했었다. 동물에게는 행복과 불행이 문제되지 않는다.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문제다. 동물에게는 지옥이나 천국이 문제되지 않는다. 지옥과 천국도 인간의 문제다. 동물들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하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다. 이성은 늘 최고의 존재를 상상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A와 B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인간은 늘 이런 궁금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성은 끊임없이 그 다음을 예상하게 한다. 다음에 대한 방향은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간다. 과거로 향할 때는 태초까지 생각을 해내고 미래로 향할 때는 종말까지 생각을 해낸다. 우주 공간 속에 빛을 빨아들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가정 하에 블랙홀을 생각해내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비너스라 불리는 미의 여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행복, 불행, 지옥, 천국, 신, 아름다움, 추함 등, 이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표한다. 그리고 모든 개념들에서도 궁극적인 것을 예상하게 한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문제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아니말 메타피지쿰¹⁾ animal metaphysicum', 즉 형이상학적 동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니체도 인간은 "이 머리를 잘라버릴 수는 없다"(인간적¹, 30쪽)고 말했다. 머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머리는 이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인간은 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1) <https://de.wikipedia.org/wiki/Metaphysik>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가 이성인 셈이다. 이 이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은 천지 차이로 변하게 된다.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두려움이다. 공포다. 무서움이다. 동물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감정들이다. 물론 동물에게도 이와 비슷한 감정이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 암에 대한 공포, 아픔에 대한 공포 등이 보험 사업을 부흥시킨다. 의학에 대한 믿음이 신앙처럼 부풀어져 있다. “가능하면 의사 없이 산다. - 병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것보다 더 경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아침, 291쪽) 이런 잠언을 읽을 때마다 대부분의 현대 독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광고의 효과라고 할까. 그래서 어떤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의사 없이 어떻게 살아?’ ‘가능하면 병원 가까이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수한다. 아니 고집을 피운다고 해야 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 제5부를 시작하는 곳에 프랑스의 군사령관 튀렌Turenne(1611-1675)의 말을 모토로 내세웠다. 그가 누군지는 독서에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가 한 말에 집중해보자. 왜 니체는 그의 말을 모토로 삼고자 했는지 그 의중을 추궁해보자.

육체여, 너는 떨고 있는가?

내가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를 안다면

너는 더욱 떨게 되리라 (317쪽)

겁나니? 두렵니? “육체여, 너는 떨고 있는가?” 너 떨고 있니? 이 문장은 시청률 60%를 넘긴 드라마 <모래시계>(1995)에서 ‘나 떨고 있니?’로 변형되어 등장함으로써 유행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떨고 있니.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더 힘들 텐데.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인생은 모두가 비극이니까. 수많은 말들을 들려주는 문장이다. 인생은 모두가 몰락의 연속이고 병들어 고생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최후의 몰락도 겪어야 한다. 태어났을 때만 잠시 박수를 받았을 뿐 성장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 앞에 박수를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다. 하나를 넘고 나면 그 다음 것을 종용한다. 삶의 진상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삶은 전쟁터이고 그 전쟁의 현상은 잔인하기 짝이 없다. 패자를 위한 윤리는 없다. 인간의 본성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잔인하다. 뱀처럼 깨물면서 행복을 느끼는 가장 잔인한 동물이다.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기뻐”(인간적II, 53쪽)하는 동물이다. 자기 종족을 죽이고 가족까지 죽이는 게 인간이다.

그렇다고 삶이 끔찍하다고 삶에 등을 지고 살 수는 없다. 삶을 포기할 수도 없다. 삶이 겁난다고 삶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수만은 없다. 삶을 증오하면 자기 손해다. 삶을 증오한다고 박수쳐줄 사람도 없다. 삶은 그저 열심히 살아줄 때 아름답게 보일 뿐이다. 힘들어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게 인생이다. 힘든 일을 앞두고 튀렌의 말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뭘 그런 것 가지고 벌벌 떨고 있니?’하고 자신에게 전의戰意를 불태워보자. 싸울 의지 말이다. 니체는 이 제5부의 제목으로 “우리들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정했다. 이 장은 특히 1887년 제2판을 내놓을 때 추가된 부분이다. “인시피트 트라고디아Incipit tragodia”, 즉 비극의 시작과 함께 《즐거운 학문》을 끝내지 못한 것은 분명 할 말이 더 남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을 들어보자.

우리의 패혈함이 의미하는 것. - 근래의 최대의 사건은 - “신은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

교의 신에 대한 믿음이 믿지 못할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이미 유럽에 그 최초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 드라마를 꿰뚫어 볼 만큼 시력과 의욕의 눈길이 충분히 강하고 예민한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의 태양이 지고 있으며, 오래된 깊은 신뢰가 의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낡은 세계가 매일 더 황혼에 물들어가고, 더 믿을 수 없어지고, 더 낯설어지고, "더 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자체는 너무 거대하고, 너무 멀고, 많은 사람들의 파악 능력을 벗어나 있어서, 이 소식이 도착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더구나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이후 이제 모든 것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붕괴가 필연적인 것은 모든 것이, 예를 들어 유럽의 도덕 전체가 이 신앙을 기초로 하여 그것에 기대어 자라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길고 엄청난 일련의 붕괴, 파괴, 몰락, 전복이 임박해 있다. [...] 무엇보다도 근심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사건의 최초의 결과 속에 있으며, - 우리에게 미치는 이 직접적인 결과가 사람들의 기대처럼 비극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새롭고 표현하기 어려운 빛, 행복, 안도감, 유쾌함, 격려, 아침놀로서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철학자들, "자유로운 정신들"은 "늙은 신이 죽었다"는 소식에서 새로운 아침놀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우리의 가슴은 감사, 놀라움, 예감, 기대로 흘러넘치고 있다. 마침내 우리에게 비록 밝지는 않을지라도 수평선이 다시 열린 것이다. - 마침내 우리의 배가 다시 출항할 수 있게, 모든 위험을 향해 출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식의 모든 모험이 다시 허락되었다. 바다가, 우리의 바다가 다시 열렸다. 그러한 "열린 바다"는 아마도 일찍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 (319쪽 이후)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야 한다. 선악과는 따먹혀야 한다. 인식은 모험을 통해 얻어진다. 그런데 모험이 즐겁다. 즐겁다면 왜 즐거운지 이유나 알고 즐거워해야 한다. 왜 학문이 즐겁지? 바로 이 질문에 니체는 답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나 보다. 그래서 "우리의 쾌활함이 의미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잠언을 하나 쓰면서 이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 그리고 허무주의 철학을 대변하는 문구를 다시 남겨놓는다. "근래의 최대의 사건은 - '신은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교의 신에 대한 믿음이 믿지 못할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벌써 세 번째다. 108번과 125번 잠언에서 벌써 등장했다. 특히 125번 "광인"이라는 잠언 속의 문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기도 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200쪽)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더 큰 문제를 이끈다. "살인자 중의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신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위로 받을 곳이 없다. 신의 상실과 함께 위로의 근거도 상실하고 말았다. 과히 '상실의 시대'다. 인간은 이제 위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것이 허무주의가 도래한 상황이다. "우리가 신을 죽었다 - 너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신을 죽인 파렴치한 살인자인 것이다.

그동안 그토록 사랑했던 최고의 존재 신, 그를 죽이고 말았다. 신은 믿음에 의해 존재할 수 있었다. 신은 신앙을 먹고 연명해왔다. 그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고 나면 신의 존재는 무의미해지고 만다. 신을 죽일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광인”을 통해 전해준 마지막 해결책은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스스로가 위로의 본체가 될 수 있는가? 신을 버리고 신이 될 수 있는가? 영생을 포기하고 실존을 선택할 수 있는가?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잔혹한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것이다.

신을 상실하고도 두려움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두려움을 모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육체여, 너는 떨고 있는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 두렵니? 너를 도와줄 신이 죽었다고 하니 무섭기 짝이 없니? 너, 육체여? 하지만 “내가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를 안다면 / 너는 더욱 떨게 되리라.” 앞날이 더 문제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하리라. 나는 너를 삶의 현장으로 데리고 간다. 허무주의 철학은 판도라의 상자다. 내가 너를 전쟁터로 데리고 간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전쟁터다. 패배의 맛은 쓰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신이 살아 있다고 생각해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일어서고, 걷고, 뛰고, 춤추고, 물구나무서고 하는 것을 신이 도와준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스스로 뭔가를 꾀하고 실천에 옮기려 할 때 신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태복음24:13)고 했다. 그 말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신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엘2:32)라고 했다. 이 말도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신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신이 정말 자비로우시다면 믿건 안 믿건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죄수들”의 항변을 다시 들어보자. “그런데 우리가 당신 믿건 안 믿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오? 당신이 정말 간수의 아들이고,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할 선한 일일 것이오. 믿거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말은 그만하시구려!”(인간적II, 284쪽) 믿음을 요구하는 것만큼 애매한 상황이 없다. 그런 것은 존재를 제대로 증명할 길이 없는 신이 요구하는 것이다.

신앙은 그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태복음5:3) 가난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에만 신이 반응을 한다. 즉 스스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또 스스로 병들었다고 또 스스로 죄인이라고 간주를 해야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신은 반응하지 않는다. 부족한 게 없는 마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겨야 신을 찾는다. 이런 심리를 영리하게 이용한 종교가 기독교다. “질병으로서의 질병에 대한 믿음 - 세계라는 벽에 처음으로 악마를 그려놓은 것은 그리스도교였다. 그리스도교는 처음으로 죄를 세계 속에 들여왔다.”(인간적II, 280쪽) 니체는 이런 신앙에 맞서려 한다. 이런 신앙에 그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허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허무함은 의존적이고 절대적인 편향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최초의 감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친 것이다. “나의 친구들이여, 용서하시라! 나는 나의 행복을 벽에 그리고자 한다.”(123쪽) 행복을 원한다. 허무주의 철학도 천국을 바란다. 하지만 그 천국은 이 지상의 것이어야 한다. “새 신앙인의 천국은 물론 지상의 천국이어야 한다.”(반시대I, 205쪽) 지상이 천국이다. 초인도 “대지의 뜻”(차라, 17쪽)이라 했다. 신의 뜻을 묻는 자는 그러니까 말이 없는 대지에게서 답을 얻어야 한다. 신은 인간의 문제다. 신은 신앙이 만든 존재다. 신은 늘 인간의 기도로 먹고 산다. 괴테도 이미 이것을 간파하고 <프로메테우스>라는 시의 2연에서 다음처럼 표

현한 바 있다.

나는 태양 아래에서
신들인 너희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을 알지 못한다,
그대들은 겨우 제물과
기도의 숨결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다,
너희들의 제왕조차도
만일 어린이들과 걸인들이
희망에 부푼 바보들이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을 것을.²⁾

물론 프로메테우스가 저항하고 있는 것은 신화 속의 신들이다. 하지만 신들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신의 속성은 똑같다. “신들이 즐겨 듣는 노래의 주제는 바로 인간의 불행이다.”(인간적, 172쪽) 불행한 소리에 신은 귀를 기울인다. 행복은 신에게 저항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는 《장미의 이름》(1980)에서 웃음을 허용하지 않았던 중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중 희극 부분을 사라지게 한 게 아닐까 하고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책은 금서로 지목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의심하면서 말이다.

웃음은 공포를 죽인다, 그리고 공포가 없다면 신앙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악마에 대해 공포를 더 이상 갖지 않는 자는 신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 그러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도 웃을 수 있게 된다.³⁾

기독교는 인간에게서 웃음을 앗아갔다. 행복을 꿈도 꾸지 못하게 했다. 그런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 놓았다. 육체에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고 학문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디모데후서3:7) 학문의 길은 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로새서2:8) 학문에 매진한다는 것은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알고자 하는 지식욕 자체가 신의 뜻과 의지에 반기를 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욕망의 불을 끌 수 없었던 괴테의 파우스트는 결국 악마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은 알고자 하는 욕구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번역조차도 도와주지 않는다. “기록되었으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여기서 벌써 막히는군! 누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결국에는 스스로가 해야 한다. 하고자 하면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문장에 대한 번역을 “태

2) Goethe: Gedichte. Sämtliche Gedichte in zeitlicher Folge, hg. v. Heinz Nicolai, Frankfurt am Main 1992, 162 .

3) <http://de.wikiquote.org/wiki/Lachen>; “Lachen tötet die Furcht und ohne Furcht kann es keinen Glauben geben. Wer keine Furcht mehr vor dem Teufel hat, braucht keinen Gott mehr [...] dann können wir auch über Gott lachen.”

4) Goethe: Faust. Erster und zweiter Teil, München 13/1992, 40쪽; “Geschrieben steht: ‘Im Anfang war das Wort!’ / Hier stock ich schon! Wer hilft mir weiter fort?”

초에 행동이 계시니라!”⁵⁾로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니체의 허무주의 사상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 말이다. “신에 대한 믿음은 믿지 못할 것이 되었다.” 믿지 못할 믿음! 신앙이 사라졌다. 이 부분에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신은 죽었다”라는 것이다.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다. 이제 모든 것이 붕괴될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한없이 사랑했던 사람이 야단을 쳐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사람이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기도 한다. 생이별을 할 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가슴을 치다가 오열하며 쓰러진다. 정을 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것을 바쳤던 신이 죽어버렸다. 이런 상황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허무? 허무함? 말이 너무 가볍다. 우리는 이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무게를 느껴야 한다.

하지만 이 소식을 과연 누가 제대로 들었을까? 앞서 니체는 “나는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왔다”(201쪽)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렇다. 그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그 때는 아직 오지 않은 듯하다. 아니 앞으로도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늘 신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성은 늘 최고의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허무주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조차 아직 많지 않은 상태다.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이후 이제 모든 것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붕괴, 파괴, 몰락, 전복”을 감당할 정신이 아직 부족하다. 자유로운 정신이 아직 부족하다. 철학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독서를 따라오고 있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우리’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있기에 상황은 “비극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새롭고 표현하기 어려운 빛, 행복, 안도감, 유쾌함, 격려, 아침놀로서 느껴”지게 된다. ‘우리’가 있어 행복한 것이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있기에 ‘즐거운 학문’이 가능한 것이다. 몰락했던 태양은 뜰 것이다. 아침은 밝아올 것이다. 세상은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암흑기라 불렸던 신의 시대는 지나갈 것이다. 앞날을 생각하면 희망이 넘친다. “우리의 가슴은 감사, 놀라움, 예감, 기대로 흘러넘치고 있다.”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허무주의가 극복되는 시점이다. 어둠이 걷히고 밝음이 정신을 지배한다. 우울함이 지나가고 경쾌함이 일상을 채운다.

《아침놀》! 《즐거운 학문》 바로 이전의 책이다. 아직 태양이 제대로 뜨지도 않은 상태일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이 수평선을 밝혀준다. 선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침내 우리에게 비록 밝지는 않을지라도 수평선이 다시 열린 것이다.” 바다가 열린다. 보이면 행동할 수 있다. 선이 보이면 “우리의 배가 다시 출항할 수” 있다. 출항! 항해! 허무주의 철학은 대양이 곁에 있음을 인식시키는 철학이라 했다. “네 곁에는 대양이 있다.”(199쪽) 대양이 임마누엘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출항하는 것뿐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파우스트가 말했듯이 “태초에는 행동이 계시니라!” 행동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펼치는 자가 허무주의적 이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이다. 행동이 성스럽다. “모든 위험을 향해 출항할 수” 있는 행동이 성스럽다. 행동하는 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인식을 위한 모든 “모험”이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줄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허무함에서 시작하여 충만함으로 이어진다. 절망에서 시작하여 희망으로 이어진다. “바다가, 우리의 바다가 다시 열렸다. 그러한 ‘열린 바다’는 아마도 일찍이 한 번도 존재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 감격적이다.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

5) 곳, “Im Anfang war die Tat!”

한 바다를 향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산타 마리아^{Santa Maria} 호를 타고 세상 끝으로 향하던 콜럼버스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으리라. 천 년이 넘도록 닫힌 세상에 살다가 스스로 행동하면서 세상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는 감격!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모험 여행을 시도하고 있다.

2. 학문과 진리에의 의지

인생은 공부다. 공부가 인생이다. 배우다가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다. 죽을 때조차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인생은 무엇인가?'하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지속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이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있는 듯하면서도 모든 것이 변한다. 이성적 정답이 영원한 것 같으면서도 변화 속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루하루가 새롭기 때문이다. 새로움을 알면 낯설음도 재밌다. 이때 공부도 재밌어진다.

배움이 삶을 삶답게 해준다. 배울 것이 없으면 따분해지고 만다. 배울 것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만다.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권태가 찾아든다. 권태만큼 삶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삶의 의욕을 무참하게 거꾸러뜨리는 것이 권태라는 괴물이다. 소중한 생명수를 앗아가는 것이 권태라는 하수구다. 권태가 고개를 치켜들면 삶 자체가 위기에 처한다. 위기에 처한 삶을 위한 철학이 허무주의다. 허무주의 철학은 삶의 위기를 인식하게 한다. 허무주의적 삶의 지혜라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스스로 새로운 배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확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심정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인식이야말로 허무주의적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 어느 정도로 신심이 깊은가, - 학문의 세계에서 확신이 아직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말할 수 있다: 가설, 실험을 위한 임시적 입장, 규제적인 허구라는 겸양으로 몸을 낮출 결심을 해야만 학문에 입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인식의 왕국에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여기에도 불신이라는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 하지만 보다 엄밀히 본다면 그것은 확신이 확신이기를 그만 둘 때만 학문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학문적 정신의 훈육은 확신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즉 이러한 훈육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미 확신이 거기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다른 모든 확신을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 단호하고 무조건적인 확신이, 학문도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아무런 전제 없는" 학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진리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우선 긍정적으로 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명제, 믿음, 확신이 그 대답 속에 표명되어야 한다, "진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진리와 비교하면 그밖에 다른 모든 것은 이차적인 가치밖에 지니지 못한다," (320쪽 이후)

모순으로 읽혀지는가? 허무주의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도 옳다고 판단되는 그 무엇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모든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또 다시 배울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신의 죽음을 선언하면서도 신을 찾고 있는 광인의 소리가? 믿음을 거부하면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만 극복되면 허

무주의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만 꼭꼭 씹어 먹으면 허무주의의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모두가 맛있게 보일 것이다. “내 책을 건넸다만 / 나와도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57쪽) 니체는 확신을 갖고 있다. 허무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 자유가 보인다는 사실을. 밀물과 썰물이 막힘이 없이 진행될 때 학문은 즐거운 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허무한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만 있다면 삶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문은 인간이 있는 곳에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인간은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배움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다. 배움에 의해 배워진 것은 축적된다. 배운 것은 쌓인다. 그것이 지식이 되고 체계를 갖춘 학문이 된다. 지식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복잡한 학문이 생겨날 것이다. 어제의 지식에 안주하면 오늘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니체가 이상향으로 꿈꾸는 청년 왕국은 배움에 나태해지는 것을 늙음으로 평가하는 세계이다. “분명한 점은 세계가 이 장년과 노인들로부터 구원된다면, 세계가 지금보다 더 구원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젊은이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반시대II, 377쪽)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인생은 늘 청춘이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루하루가 천국이다.

반대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를 들여다보자. 왜 이런 생각이 생겨나는 것일까?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 학문으로 간주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차원에 머무를 때 새로운 경지는 요원한 이론이 될 뿐이다. 그래서 허무주의적 자세는 배우면서도 늘 자신에게 “불신이라는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을 허용해야 한다. “확신이 확신이기를 그만 둘 때만 학문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입장이다. 확신은 불신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법 앞에 선 시골 청년은 법을 포기할 수 없어 ‘법 앞에서’⁶⁾ 죽어간다. 마치 창문에 ‘갇힌 파리’⁷⁾ 목숨처럼 가련하게 죽어간다. 법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힘을 발휘하는 허구와 같다.

법이 되어든 진리가 되었든 신이 되었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확신이 필요하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확신이 마침내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학문의 세계에서 인정되는 확신의 시민권은 “확신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될 뿐이다. 말이 꼬인 것 같다. 간단하게 말하면 확신을 얻기 위해 확신을 끊임없이 검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확신이 불신과 균형을 잡아줄 때 학문, 즉 인식의 왕국은 튼튼한 제국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배움이 배움으로 가능하려면 확신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배울 것이 있다는 느낌이 없다면 배움의 현장은 고통스러운 곳이 되고 만다. 배워야 한다는 의무감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또 없다. 하기 싫은 데 해야만 하는 상황만큼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게 또 없다. 하지만 확신이 설 때 배움은 시작된다. 그 확신을 사랑이라 해도 좋고 경이로움이라고 해도 좋다. 그것이 무엇으로 불리던 간에 배우고자 하는 사물에 대한 열정이 배움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리라. 사랑을 온 몸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가르침을 펼칠 수 있다고.

확신! 그것의 전제가 배움, 즉 학문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은 또한 “학문도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아무런 전제 없는’ 학문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라우베^{Glaube}, 믿음. 신앙이라 번역해도 되는 말이다. 이것 또한 모순으로 읽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신을 부정하고 “‘신앙’이란 무엇이 참인지를 알고자-하지-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안티, 293쪽)는 말에

6) Kafka: Die Erzählungen und andere ausgewählte Prosa. Originalfassung, hg. v. Roger Hermes, Frankfurt am Main 1997, 162 이후; “Vor dem Gesetz”.

7) 이동용: 쇼펜하우어, 돌이 별이 되는 철학, 위의 책, 409쪽 이후

서 읽혀지듯 믿음을 거부한다. 맞는 말이다. 그것이 허무주의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 또한 허무주의가 아니다. 허무주의는 허무를 도래하게 하는 능력과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고 가게 하는 것을 모두 능력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밀물은 오게 하고 썰물은 거게 해야 한다. 막힘이 없어야 도道가 튼다. 도가 튼 사람은 막힘이 없는 자다. 그 자가 깨달음을 얻는 경지에 도달한다.

새로운 진리는 이전의 진리에 대한 회의와 함께 시작한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그때까지 믿어왔던 모든 ‘진리’에 대한 회의와 함께 시작한다.”(인간적Ⅱ, 31쪽) 이런 경우라면 권태도 좋은 것이다. 파괴조차도 생산적인 것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진실을 원한다면 거짓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면서 진실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신을 원한다면 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진리를 원한다면 진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확신을 원한다면 확신이 확신이기를 그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이면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적인 시선이다. 사물을 그 드러난 현상으로만 보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성적 존재에게 진리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성적 존재에게 진리는 영원한 숙제일 뿐이다. 풀어도 풀어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라고 할까. 알렉산더처럼 단칼에 끊는다 해도 미련이 남는 그런 매듭이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우선 긍정적으로 답해야” 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명제, 믿음, 확신이 그 대답 속에 표명되어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진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진리와 비교하면 그밖에 다른 모든 것은 이차적인 가치밖에 지니지 못한다.”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들려주는 지혜다. 바로 이런 인식에서 진리에의 의지가 생겨난다. 허무주의 철학에 다른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진리에의 의지! 그것은 허무주의적 의지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리에의 의지”는 “나는 기만당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 “나는 기만하고 싶지 않다, 나 자신까지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도덕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322쪽)

허무주의 철학도 지극히 도덕적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도덕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믿음 위에 기초”(321쪽) 하고 있다고도 했다. 같은 말이다. 그렇다면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도덕과 신앙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나는 기만당하고 싶지 않다. 나 자신까지도”라는 말로 집약된다. 학문이 이런 도덕과 신앙 위에 서게 될 때 사회는 니체가 꿈꾸었던 젊은이의 왕국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왜 학문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까지도 “도덕의 문제로 환원”(323쪽)되고 만다. 결국 허무주의 철학도 도덕적인 인간을 추구한다. 그것도 “나는 기만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학문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는 허무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기만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허무주의적인 것이다.

신앙과 도덕 위에 서 있는 허무주의 철학,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한계라고 폄하해서도 안 된다. “학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형이상학적인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 “모가지는 자를 수 없다”(인간적Ⅰ, 30쪽)고 했다. 인간은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 가장 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도 이 이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다른 것

이 있다면 영원한 진리 따위는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실도 없다.”(인간적, 25쪽) 이것이 허무주의적 판단이다.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기도 하는 것이 이성의 힘이다. 하나에 얽매일 때 고집만 늘어난다. 고집스런 정신은 스스로를 쇠사슬로 구속하는 힘이 될 뿐이다. 젊은이의 왕국을 방해하는 늙음의 현상은 바로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3. 도덕과 가치를 문제 삼는 허무주의 철학

도덕을 위해 도덕을 문제 삼는다. 진리를 위해 진리를 문제 삼는다. 신을 위해 신을 문제 삼는다. 가치를 위해 가치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되어 왔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덕과 가치로 세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모방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창조적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이념이다. 도덕의 최정상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가치까지도 끌어내리려는 의지가 허무주의적 의지다. 신의 존재 증명까지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허무주의적 용기다. 허무주의적 검증 앞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로서의 도덕, - 어디에서건 인간의 결함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유약하고, 미미하고, 활력을 잃고,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인격은 좋은 일에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특히 철학에는 가장 쓸모가 없다, “무사무욕”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아무 가치가 없다, 모든 위대한 문제는 위대한 사랑을 요구한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능력은 오직 자기 자신을 확고히 지니고 있는 강하고, 원숙하고, 굳건한 정신의 소유자만 지니고 있다, 어떤 사상이든 자신의 문제에 개인적 인격으로서 마주하여 그 안에 자신의 운명, 자신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최상의 행복을 지니고 있는 것과, “비개인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것, 즉 냉정한 호기심의 더듬이로 사상을 더듬어 파악하는 것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약속한다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사 그것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문제들은 개구리나 나약한 자들로서는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위대한 문제들이 지닌 영원한 취향이다, - 이러한 취향은 또한 모든 건강한 여성들의 취향이기도 하다, - 도덕에 대하여 개인으로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 도덕을 문제로서 인식하고, 이 문제를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 고통, 열락, 정열로서 인식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책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것은 어찌된 일일까? 명백하게 도덕은 지금까지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들이 모든 불신, 분열, 대립을 겪은 이후에 그 안에서 서로 일치하는 신성한 평화의 장소였다, 사상가들도 또한 이곳에서 자신으로부터 도피하여 휴식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도덕적 가치판단에 대한 비판을 감행한 사람을 아직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학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험, 심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상상력의 실험이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 상상력이야말로 문제를 손쉽게 선취하고, 재빨리 낙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낙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러한 감정과 가치 평가의 기원과 역사를(이는 그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것이며, 윤리학 체계의 역사와도 다른 것이다) 추적하기 위한 몇 가지 미미한 단초들을 발견한 직후에, 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성향과 재능을 고무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324쪽 이후)

상당히 길다고 느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 또한 이하부분을 생략해서 인용한 것이다. 천천히 자기 속도를 지켜가며 읽으면 이해되지 못할 텍스트는 없다. 아무리 어려운 텍스트도 그것이 인간의 이성인 것이란 것이라면 결국에는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낯선 곳을 여행한다고 해도 그곳의 문화를 알아가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니체의 텍스트 또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면 읽혀질 수 있다.

일단 니체가 선택한 제목을 살펴보자. “문제로서의 도덕”이라고 했다. 도덕을 문제 삼은 자가 있었던가? 니체의 대답은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단정한다. 지금까지!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도덕은 오로지 전체 혹은 집단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도덕에 의해 개인들은 집단의 기능이 되고, 또 오로지 기능으로서만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도록 인도된다.”(192쪽) 그 결과 도덕을 공부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될수록 집단에 유용한 인간이 될 뿐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인 생각과 활동은 미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도덕성이란 개인들 속의 무리 본능”(192쪽 이후)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니체는 개인의 삶을 무시한 이런 도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도덕성으로부터 개인성을 변호하고자 한다. 아니 개인성을 넘어 인간성으로까지 범위를 넓혀가 고자 한다. 너무나 도덕적인 것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디서건 인간의 결함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간이 인간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함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결함은 인생이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의무로 도덕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정신은 도덕의 범주를 벗어나면 친구가 하나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인생은 “서너 명의 친구들”(인간적Ⅱ 345쪽)만 있어도 충분히 사치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이 ‘인간의 결함’일까? 좀더 니체의 생각에 다가서보자. “유약하고, 미미하고, 활력을 잃고,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인격은 좋은 일에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결함이다. 그 결함으로 인해 인간적이지 못한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 유약하다. 강직하지 못하다. 고집만 피운다. 그리고 미미하다. 예민하다. 힘든 것이라고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몸매를 지니고 있다. 또 활력이 없다. 힘이 없다.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다. 활동력이 부족하다. 일어서고 걷고 뛰고 춤추고 물구나무설 수 있는 힘은 상실되고 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인격으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 인격으로 일궈낸 업적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거기에는 장인정신이 결여되어 있을 뿐이다. 아무리 잘 된 일이라 해도 남이 하라는 데까지만 한 일이 될 것이다. 한계를 넘어서는 치열함의 결과물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인생이 그런 결과물에 해당한다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

“‘무사무욕’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아무 가치가 없다.” 도덕성으로 무장한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주의를 부르짖으며 도덕의 땅에서 선구자처럼 행동할지는 몰라도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은 내동댕이쳐지고 만다. 생각과 행동 속에 자기 자신이 없다. 남의 의견 혹은 타인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견을 마치 자기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다. 유행따라 휘둘리고 있는 인생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원한다고 외치고 있는 꼴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주체적이지 못한 이런 삶에 대한 인식을 전하고자 한다. 집단적 무리 본능과 관련한 이런 도덕적인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허무주의는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자 한다. 그런 사랑은 새롭게 배워야 한다. 학교나 사회에서 가르쳐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애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던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도덕적 내지 종교적 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자기 자신의 운명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해도 그 안에 자기 운명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의 별들도 자기 자리가 있듯이 모든 인간들도 분명히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다.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냥 즐겨 읽는 성경구절이 기억나 외워본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사편11:1-2) 인생을 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잔머리는 들키게 마련이다. 길에도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 말아야 한다.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이다.

자기 자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자기 자신이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 그래서 낯설게 보인다. 가장 자기답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의욕에 넘친 모습은 가끔 운명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새로운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삶의 문제는 사랑으로서만 해결된다. 사랑이 없으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위대한 문제는 위대한 사랑을 요구한다." 명언이다. 사랑이 없다면 문제도 없다. 사랑이 있어 문제도 있는 법이다. 무엇이 문제를 위대하게 만들까? 그것은 분명 사랑이다. 인생이 문제라면 인생 또한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 위대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멋진 삶, 행복한 삶, 모범이 될 만한 삶, 이 모든 긍정적인 삶들은 사랑을 요구했고 또 그 사랑에 부합하려 했던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능력은 오직 자기 자신을 확고히 지니고 있는 강하고, 원숙하고, 굳건한 정신의 소유자만 지니고 있다." 위대한 사랑의 능력은 자기 자신이 확고한 사람만이 갖고 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건강해야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력이 발산되는 법이다. 자기 자신이 확고해야 번개가 치는 짜릿함을 인생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감정으로선 상처만 남길 뿐이다. 그래서 위대한 사랑의 능력은 자기 자신이 먼저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사랑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실수라는 덧에 걸리고 만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랑의 콩깍지가 썩이면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욕망이 앞서면 상황을 견잡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단언하지만 상대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전혀 감지하지도 못한다. 혹은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자기를 잃고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끝났을 때 다가오는 허망함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 이래도 저래도 위기가 닥친다. 자기 자신이 확고하지 않다면 어떤 사랑을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 사랑으로는 자기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든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던 사람이 급기야 인류를 위한 업적을 남길 때가 많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괴테의 파우스트이다. 파우스트는 지식욕, 성욕, 소유욕 등 다양한 욕망의 화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좌충우돌을 겪는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개인을 넘어 인류를 위한 공헌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간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고전주의 사상이다. 휴머니즘 사상이다. 인간중심 사상이다. 인문주의의 이념이다. 이것이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다.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⁸⁾는 말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하마르티아(Hamartia)’⁹⁾, 즉 결점을 운명적으로 안고 태어난 인간에게 방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은 비극적이다.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인간을 위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이런 말이다. ‘네가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이보다 더 따뜻한 소리는 없다.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인격”에 대립되는 것은 “개인적 인격”이다. 이런 개인적 인격만이 자기 문제에 솔직해질 수 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개인적 인격만이 자신의 문제에서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고 자신의 고통을 삶을 위한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격만이 자기 문제 안에서 최상의 행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모든 위대한 문제는 위대한 사랑을 요구한다.” 이런 사랑이 바로 운명애이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허무주의 철학의 정석이다.

위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잉태할 수 있는 여성성의 본질과 닮아 있다. “위대한 문제들이 지닌 영원한 취향”은 다름 아닌 “모든 건강한 여성들의 취향”이기도 한 것이다. 위대한 사랑은 건강한 여성들에 의해 실현된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인식의 경지에 도달하고, 또 그 인식의 결과물로서 잉태의 산물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는 여성성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여성은 완전한 남성보다 더 높은 인간 유형이다”(인간적I, 323쪽)라는 주장이 지극히 옳은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신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다. 하늘이 아니라 대지를 바라본다. 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 안의 운명을 바라본다.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내면의 벽에 걸려 있는 자기 목소리를 바라본다. 눈을 감고 눈을 뜨려고 한다. “제3의 눈”(아침, 380쪽)이 바로 그런 눈이다.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어느 것도 아름답지 않다. 인간 외에는”(우상, 158쪽),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하고자 한 말이다. 도덕이 문제없다고 즉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모든 도덕주의자들을 향해 허무주의 철학은 반기를 든다.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인간과 인간성을 변호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든 불신, 분열, 대립을 겪은 이후에 그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는 신성한 평화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한다.

사랑이 최고의 명약이다. 모든 상처를 아우를 수 있는 명약이다. 사랑 하나면 모든 병이 치유될 수 있다.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없다. “그 안에서 서로 일치”되는 경지는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차선택으로 권유될 만한 것이 바로 정신적인 사랑일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 하는 것은 모두가 그 다음의 것일 뿐이다.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선택하

8) Goethe: Faust, 책, 16쪽; “Es irrt der Mensch, solang er strebt.”

9) Ivo Braak: Gattungsgeschichte deutschsprachiger Dichtung in Stichworten, Teil Ia Dramatik, Antike bis Romantik, Kiel 1975, 21쪽;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마르티아를 비극의 원인으로 간주했다. 비극적 죄는 도덕적 죄가 아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런 개념을 알지 못했다. 비극적 죄는 객관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결함에 있다.

는 방식일 뿐이다. 물론 이런 사랑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주하려는 정신이 문제일 뿐이다. 그런 사랑으로 자신의 “무사무욕”을 혹은 금욕적인 생활 자체를 찬양한다면 그것이 문제일 뿐이다. 그런 정신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말하는 “신성한 평화의 장소”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현될 뿐이다. “사상가들도 또한 이곳에서 자신으로부터 도피하여 휴식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활기를 되찾았다.” 사상가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남의 정신으로 작업하는 것이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다. 모든 학문이 신학의 시녀였을 때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런 시대에 사상가들은 은밀한 곳에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으로부터 도피”를 즐겼다. 소위 세속적인 이야기를 읽으며 휴식을 취했던 것이다. 삶의 현장 속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활기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한숨을 내쉬며 활기를 상실한 채 주저앉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또 있을까. 심호흡은 좋아도 한숨은 안 된다. 한숨은 금물이다. 한숨은 서고 뛰고 춤을 춰야 할 땅도 꺼지게 한다. 죽을 때까지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 인간은 숨을 잘 쉬어야 한다. 활기를 되찾는 그런 숨을 쉴 줄 알아야 한다.

비개인적인 인격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냉정한 호기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늘 간접적으로만 인식할 뿐이다. 생각으로만 이해할 뿐이다. 그런 인식의 내용은 쉽게 잊혀지고 만다. 그런 인식의 내용은 삶의 현장에서 삶을 위한 힘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사라질 때가 더 많다. 이에 반해 니체는 이런 고백을 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학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험, 심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상상력의 실험”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상력이야말로 문제를 손쉽게 선취하고, 재빨리 낚아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도덕에 얽매이지 않은 상상력만이 진정한 자유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상력만이 도덕을 문제로 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상력만이 “이러한 감정과 가치 평가의 기원과 역사”를 문제로 다룰 수 있다. 니체는 이런 연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의 허무주의 철학은 그러니까 도덕과 한바탕 씨름을 하고 나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도덕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인정한다. “도덕적 감각의 역사”는 “오류의 역사”(인간적, 69쪽)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덕이 오류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옳음은 틀림을 전제한 개념에 불과하다. 진리는 거짓을 전제로 할 때만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할 수 있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 줘야 했다. 소위 내공이 쌓여야 한다. 아직까지도 도덕 얘기만 나오면 무기력해지는 정신이 있다. 그만큼 도덕은 극복되기 힘든 대상이다. 신도 마찬가지다. 신 얘기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쏟아내는 정신이 많다. 신념으로 똘똘 뭉친 노예정신이면서도 자유를 외친다. 참으로 신은 극복되기 가장 힘든 대상이다. 이 힘든 극복의 작업이 허무주의 철학의 본업이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다.”(326쪽)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기! 틀림을 넘어 옳음으로 나아가기! 거짓을 밝히고 진실의 편에 서기!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도덕적 감각의 역사에서 오류를 밝혀내고 그 오류를 넘어서는 것이 허무주의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치를 - 문제 삼아야 한다.”(326쪽) 가치를! 옳다고 믿어왔던 것을! 신까지도!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대상 중에 금기의 대상은 없어야 한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 아직까지도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가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으로 가치를 바

라봐야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적 자세이다. 그래서 허무주의 철학의 다른 이름은 가치의 철학이기도 한 것이다.

4. 오해를 받고 있는 허무주의 철학의 이름들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다. 서로가 자신의 이성으로 대화에 참여할 때가 그렇다. 자신의 이성을 옳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가장 답답하다. 서로가 힘들다.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활기를 되찾기보다 의욕 자체를 앗아갈 때도 있다. 이성적 존재에게 대화는 위로와 치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

오해는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활력을 앗아가는 대화만큼 피해야 할 것이 또 있을까. 때로는 돌아서는 것이 지혜일 때도 있다. 오해가 그런 것이다. 오해에 맞서려고 하면 더 일이 꼬일 때가 많다. 오해가 시작된 부분을 철두철미 집착할 때 그 오해는 풀려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치의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의 이성이 도출해낸 정답이 수정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침묵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황홀한 마음마저 단단히 붙잡아 억제하면서 절도라는 순결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저 사람들을 아직 본 적 없는가?”(아침, 387쪽) 그가 바로 허무주의 철학을 실천하는 자이다.

관계 속에서는 침묵으로 대화를 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어도 정신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글로는 훗날을 기약하며 남겨놓을 수 있다. 그래서 니체는 글쓰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훗날을 기약한다는 의미에서 니체의 철학은 미래를 위한 철학이기도 하다. 허무주의 철학은 허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수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좋은 것, 옳은 것, 영원한 것 등 사실 이런 것을 말할 때 생겨나는 긍정적인 마음은 너무도 좋다. 그 좋은 마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려 하는 허무주의 철학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겨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철학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우리의 의문부호, - 그런데 그대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사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할 말을 찾고 있으며, 또한 아마도 들을 귀도 찾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자신을 진부하게도 그저 무신론자, 불신자, 비도덕주의자라고 불리게 놓아둔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불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후기의 단계에 이른 위의 세 가지 모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대들 호기심 많은 신자들이 그 정황을 파악할 수 있기에는 이 단계는 너무 후기에 속한다. 그렇다! 그것은 사슬에서 풀려난 자가 이제 불신에서 또 하나의 신앙과 목적과 순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정열이 아니다! 세상은 결코 신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적인 척도에서조차도 이성적이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통찰 속에서 우리는 살기고 또 식어서 단단해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신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인간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계를 오류와 허위로, 우리의 존경의 소망과 의지에 따라, 즉 필요에 따라 해석해왔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경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또한 불신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이 궁극적으로 지니게

된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불신이 많을수록 철학도 많다. 우리는 이 세계가 더 적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6쪽 이후)

니체는 허무주의 철학이 “무신론자, 불신자, 비도덕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 철학을 규정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허무가 허무가 아닌 것처럼, 고통이 고통이 아닌 것처럼, 이성이 이성이 아닌 것처럼, 신이 신이 아닌 것처럼, 인간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도덕이 도덕이 아닌 것처럼, 가치가 가치가 아닌 것처럼, 악이 악이 아닌 것처럼, 이런 개념들에 대한 감정도 바뀌어야만 허무주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늘 염두에 두고 독서에 임해야 한다. ‘내가 과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쉽게 씹히거나 소화되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 아니라고 했다. 니체가 자신의 독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튼튼한 이와 튼튼한 위장”(56쪽)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니체는 “사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노력 없이 되는 일이 또 있을까? 뭔가를 해내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도 허무주의 철학과 관련한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쉽게 이해된 것은 쉽게 잊혀지고 만다. 지름길보다는 차라리 우회로를 선택하자. “이른바 ‘지름길들’은 항상 인류를 큰 위험에 빠뜨렸다.”(아침, 66쪽) “아름다운 것을 향한” 길은 “필수적인 우회로”(인간적II, 72쪽)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고 했던가. 어쨌든 서두름은 금물이다.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우연이 필연처럼 느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대화만 할 수 있어도 많은 발전을 한 것이다. 대화가 부족해서 갈라서는 것이 너무도 많은 곳이 인연이라는 영역이다. 인연이 되지 않으면 돌아설 수밖에 없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책은 또 어떨까. 철학도 마찬가지다. 인연이 맞아야 책도 읽혀진다. 인연이 맞아야 철학도 납득이 간다. 선생도 적당한 때에 나타나줘야 가치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뿌려진 씨앗이라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 소멸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할 말을 찾고 있으며, 또한 아마도 들을 귀도 찾고 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말을 찾는 것도 관건이다. 또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어주는 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말을 찾는 것과 귀를 찾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찾는 것이 찾아질 때는 그만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가 필요로 할 때 만난 관계는 스승과 제자라는 고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 이때 가르침과 배움은 엄청난 힘을 잉태하게 한다. 인연만 맞으면 책이 아니라 사소한 문장 하나에서도 커다란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인연만 맞으면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탄생시킬 수 있다. 인연만 맞으면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다. 그것도 신세계에서 펼쳐지는 삶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인연만 맞으면.

생철학자 니체는 할 말을 찾아 치열하게 글을 남겨놓았다. 미래의 독자를 위해 수많은 배려를 해놓았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암초에 대해서도 제때 경고판을 써놓았다. 철학자 니체는 고인이 되었지만 그의 글은 이제 불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가장 소중한 인류의 유산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그런 허무주의 철학이 “무신론자, 불신자, 비도덕주의자”라는 진부한 개념으로만 불리고 있다면 아직 이해의 단계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상황이다. 왜

냐하면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에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때까지 독서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것을 니체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씹힐 때까지 씹어야 하고 소화될 때까지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자신의 건강을 위한 영양소로 작용해줄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단단한 음식이다. “세상은 결코 신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적인 척도에서조차도 이성적이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통찰 속에서 우리는 살기고 또 식어서 단단해졌다.” 마치 쇠가 불과 물을 번갈아 옮겨 다니며 단련되듯이. 신의 사망선고와 함께 스스로 신이 되기를 바란다면,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추궁한다면, 우월한 남성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여성성을 인정한다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를 원하는 한 갇힌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철학을 씹어내기 위해 어떤 이빨이 필요할까. 또 그 씹은 내용물을 소화해내기 위해 어떤 위장을 가져야 할까? 그저 니체는 이런 말로 위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중요한 말이라서 다시 한번 반복해본다. ‘세상은 결코 신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적인 척도에서조차도 이성적이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세상은 관념론자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이성적인 것도 아니다. 세상은 신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으며 정의롭지도 않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허무주의는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스스로 사막으로 내몰고 대양으로 내몰고자 하는 의지가 허무주의적인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신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인간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소리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도덕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것은 허무주의가 말하는 인간적인 것과 다른 것이다. 그 차이를 인식할 때까지 허무주의의 말들을 씹고 또 씹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계를 오류와 허위로, 우리의 존경의 소망과 의지에 따라, 즉 필요에 따라 해석해왔다.” 모든 해석은 본질이 아니다. 이성적 영역에서 유권적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해석은 전제가 있고 상황이 따른다. 그래서 모든 해석은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성으로 해야 한다. 해석이 하나밖에 없을 때만큼 답답한 상황이 없다. 해석이 변할 수 없다면 독단만이 판을 친다. 하나의 해석만이 정답으로 간주되는 사회는 닫힌 사회에 불과하다.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만큼 위험한 사회가 없다.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붕괴되는 비극적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허무주의적 정의는 이렇다. “인간은 존경하는 동물”인 동시에 “인간은 또한 불신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존경과 불신을 모두 할 줄 알아야 인간인 것이다. 배우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면서 인간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책상 앞에 앉힐 줄도 알아야 하고 책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머물던 오두막도 불사르고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 사랑을 하고 싶으면 증로도 배워야 한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면서 성장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진리가 영원이라는 옷을 입게 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 하나의 사실이 불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보다 흥측한 것이 없다.

허무주의 철학은 파도와 같다. 오고 또 간다. 올 때는 살벌하게 오고 갈 때는 모든 것을 바퀴놓는다. 올 때는 콩깍지를 씌워놓고 갈 때는 정신줄을 놓게 한다. 올 때는 한없이 정을 주고 갈 때는 매정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이 궁극적으로 지니게 된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불신이 많을수록

철학도 많다. 우리는 이 세계가 더 적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진의다. 살벌하다고 역겨워할 필요 없고 매정하다고 등 돌릴 필요 없다. 이성에는 이성으로 맞서야 한다. 그럴 줄 알아야 한다. 이성의 영역에서 모든 것은 가치가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다. 모든 순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쓸데없는 방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떠났다고 너무 목 놓아 울 필요도 없고 왔다고 너무 매달려 좋아할 필요도 없다. 때가 되면 또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오고 가는 대상에 대해 너무 휘둘리지 않을 때 그 대상은 오히려 삶을 위한 것이 된다. 사물이 삶에 방해가 될 때는 모두가 스스로 나약해져 있을 때뿐이다.

전체적인 태도에 있어 “세계에 적대적인 인간”, “세계 부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인간, 사물의 가치척도이자 세계의 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결국 현존재 자체를 자신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이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인간 - 이러한 태도에서 엿보이는 끔찍한 물취미는 그대로 우리에게 의식되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 우리는 “인간과 세계”가 “과”라는 승고한 참칭의 한 단어로 분리된 채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웃음부터 나온다! (328쪽)

인간과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간은 좋고 세상은 나쁘다고 말해왔다.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고 세상은 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쳐 왔다. 인간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어야 하고 세상은 물로 혹은 불로 종말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믿어 왔다. 어떤 신을 믿건 그 믿는 신앙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 왔다. 그런데 허무주의 철학은 다른 가르침을 펼친다. 인간과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따로 놓고 보려는 의도 자체가 웃긴 것이라고.

인간과 세계, 그것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다고나 할까. 세상은 싫다고 하면서 자기는 좋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모두가 세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물의 가치를 자신의 저울 위에서 가늠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가소롭기 짝이 없다. 이런 태도가 보여주는 것은 오로지 “끔찍한 물취미”일 뿐이다. 취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취미가 없는 것이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물취미는 허무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 중 그 어느 하나라도 폄하하는 발언들이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태도만큼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또 있을까. 하나를 무시하고 다른 하나를 존중하는 것은 허무주의적이지 않다. 그런 존경은 세상도 자기 자신도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

“존경을 폐기하든지 아니면 너희들 자신을 폐기하라!” 후자는 허무주의일 것이다, 하지만 전자 역시도 - 허무주의가 아닐까? - 이것이 우리가 짚어놓은 의문부호이다, (328쪽)

어느 하나에 매달렸던 자신은 포기하라. 어느 하나의 가치에 얽매었던 자신을 버려라. 신을 필요로 했던 자기 자신을 폐기하라. 신의 종족, 즉 “너의 종족을 존경하지 않는”¹⁰⁾ 것을 거인의 미덕이라 했다. 프로메테우스의 정신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닮은 종족을, 즉 거인인 “나를 닮은 종족을”¹¹⁾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니체가 원하는 인간상은 자기 자신까지도 극

10) Goethe: Gedichte. Sämtliche Gedichte in zeitlicher Folge, 책, 163쪽.

11) 같은 곳.

복의 대상으로 삼을 줄 아는 것을 미덕으로 한다. 스스로 신이 될 수 없는 자신이라면 그런 자신은 과감하게 폐기하라.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길을 돌릴 줄도 알아야 한다.”(차라, 255쪽) 그리고 떠나라. 떠나야 자유를 얻는다. 떠나지 않고 자유를 운운하는 정신은 자기기만일 뿐이다. “먼저 너 자신의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인간적II, 415쪽)고 했다. 떠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허무주의 철학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기란 정말 힘들다. 웬만한 정신으로는 턱도 없다. 웬만한 것을 요구하는 철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넘어지기를 거듭하고 또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무너지는 아픔을 감당해야 하고 또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눈물을 모을 줄도 알아야 한다. 언젠가는 파도처럼 쏟아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모을 줄 알아야 쏟아낼 줄도 알게 된다. 정신을 침묵 속에 가둬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폭풍을 맞이하여 모험 여행을 떠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구속할 줄 알아야 풀어놓을 줄도 알게 된다.

‘아픔을 딛고 일어난다!’ 말은 참 쉽다. 하지만 정말 상처가 나고 아픔이 느껴질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 아픔은 온갖 용기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허무주의 철학은 일어서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걷고 뛰고 춤추고 물구나무서기를 요구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너 떨고 있니? “육체여, 너는 떨고 있는가?”(317쪽) 너 두렵니? 겁을 집어 먹고 있니? 너무 무서워 발이 움직이지 않니? 자신을 포기할 용기가 없니? 버릴 수 없다면 취할 수도 없다. 용기가 없다면 삶도 짐이 된다. 비울 수 없다면 채울 수도 없다. 창조적인 삶을 바란다면 파괴를 자기 삶에 허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무신론자니 불신자니 비도덕주의자니 하는 진부한 개념으로 허무주의 철학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말로 함부로 단정하지 않도록 하자. 니체와 친해지고 싶다면 이런 개념부터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하자. 저글링해야 할 세 개의 공이라고 생각하자. 과거의 개념으로 사상적 지도를 그리지 말자. 그런 것은 오해에 근거를 둔 해석이요 평가일 뿐임을 인정하자. 허무주의 철학은 그런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인간을 찾고 있노라’라는 말을 ‘신을 찾노라’라는 말로 바꿔놓은 의도에 귀를 기울일 때 허무주의가 제시하는 이념은 이해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인간을 찾고 있노라’, 이 말이 자석처럼 힘을 발휘할 때 ‘신을 찾노라’와 관련한 모든 개념은 다른 의미를 지니며 다가오게 된다. 무신론자니 불신자니 비도덕주의자니 하는 소리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옴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허무주의의 식탁에서 가장 맛난 음식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념과 어감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때에 허무주의적인 지혜가 탄생할 수 있다. 허무도 새옷을 입고, 신도 새옷을 입고, 인간도 새옷을 입고, 모든 것이 새옷을 입을 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발 하나만 바꿔 신어도 마음이 달라진다. 과거에 지혜였던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지혜로 등장하게 될 때 발걸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지혜는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까칠한 여인이다. 세계에 적대적이 되지 말자. 세계 긍정을 원칙으로 삼자. 사물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말자. 세계는 말이라는 옷을 수시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지혜, 그것은 우리가 용감하고, 의연하고, 냉소적이며 난폭하기를 소망한다. 지혜는 여인이고, 그리하여 늘 전사만을 사랑한다.”(차라, 64쪽) 지혜는 전사만을 사랑한다. 사랑을 완성하는 ‘건강한 여성’은 전사 앞에서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허무주의가 치러야 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했다. 그렇다면 지혜는 자기 자신까지도 내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전사만을 사랑한다는 말도 된다. 지혜는 여자라서 그런 것이다.

5. 신앙은 늙은 정신과 병든 의지의 산물

신앙은 허무주의 철학이 경계하는 최고의 것이다. 모든 가치는 신앙과 함께 형성된다. 여기 까지가 종교적 판단이다. 하지만 허무주의 철학은 그 다음을 가르치고자 한다. 즉 가치가 형성되면 허무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형성된 가치에 안주하는 것은 쇠사슬에 손목과 발목을 묶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다. 허무주의는 끊임없이 허무를 허용하고 또 그 허무를 극복해내기를 요구한다. 허무는 오고 가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밀물과 썰물의 이 새로운 법칙을 이해”(69쪽)할 때에만 가시화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고 간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성이 주시하는 것은 늘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일 더하기 일은 이, 이 더하기 이는 사, 이런 것이 이성적 판단이다. 이성은 이념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고집을 피우게 만든다. 이것이 이성의 한계다. 인간의 한계다. 이성적 존재의 한계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영원한 숙제가 되는 것이다.

“‘신앙’이란 무엇이 참인지를 알고자-하지-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안티, 293쪽) 신앙과 관련하여 이보다 더 강렬한 문장은 없는 것 같다.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신앙으로 무장한 정신은 그 무엇에 얽매어 있는 것이다. 그는 결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는 못한다. 늘 그 믿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것이다. 믿음이 구원이라는 말에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행복에 겨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직면하게 될 때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물거품과 같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자 하는 욕구가 포기되면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귀를 막고 사물의 소리를 들으려는 것과 같다. 보여주는 것만을 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 들려주는 소리만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보다 편협한 생각은 없다. 이보다 위험한 생각은 없다.

신자들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요구, - 한 인간이 삶을 꽃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신앙을 필요로 하는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 고수해야 할 “확고함”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가 - 그가 지닌 힘의(보다 분명하게 말하면 그의 약함의) 척도이다, 내가 보기에 늙은 유럽 대륙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교는 아직도 여전히 신심을 얻고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앙의 명제를 수천 번이라도 반박할 수 있다, -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한, 언제라도 거듭해서 그것을 “진리”로 여길 것이다, (329쪽)

늙은 유럽! 유럽이 늙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늙은 것일까? 무엇을 두고 늙었다고 판정낼 수 있을까? 늙음과 청년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이의 많고 적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니체가 말하는 늙음과 청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관건이다. 《비극의 탄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니체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자고 제안했었다. 그것도 “어떤 아테네 노인”(비극, 179쪽)의 음성으로 대체를 해놓았다. 뭔가 새

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는 청년의 몫이기 때문이다. 고통으로 충만한 비극을 봐야 하는 존재는 청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를 따라와 비극을 보세. 그리고 나와 함께 두 신의 신전에 제물을 바치세!”(같은 곳) 《비극의 탄생》을 마감하는 문구다. 또 《반시대적 고찰》에서 니체는 “분명한 점은 세계가 이 장년과 노인들로부터 구원된다면, 세계가 지금보다 더 구원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젊은이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반시대Ⅱ, 377쪽)라는 말로 밝은 미래를 확신했었다.

비극은 청년의 몫이다. 힘이 있어야 고통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늙으면 고통이 무섭다. 고통이 무서워 사랑도 꺼린다. 사랑이 남겨놓을 고통이 무서운 것이다. 비극은 엄청난 힘을 요구한다. 젊은이에게 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강렬한 비극을 보고서도 웃으며 극장을 떠날 수 있다. 청년이라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늙은 정신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울한 장면에서도 하염없는 눈물을 쏟으며 오열할 수가 있다. 늙은 사람이 울면 그래서 무섭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년과 노인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라! 니체는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삶을 구원하고 청춘을 선사하라! 젊음은 생각의 문제다. 자유로운 생각이 젊음의 상징이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는 고집이 세졌다는 데 있다. 어떤 하나의 가치에 얽매일 때 정신은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자유정신은 그 어떤 얽매임도 전제하지 않는다. 자유정신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극복할 수 있는 자는 청춘 속에 있다. 그가 곧 청춘이다. 그의 삶이 젊은 것이다. 허무주의적 구원론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 속에만 실현된다. 세월을 잡아둘 수 없다.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젊음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것이다. 정신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바라는 바다.

종교적으로 생각하다보면 마치 신앙이 삶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살기 위해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니체는 이런 신앙에 대한 요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삶에 대한 힘은 나약해질 뿐임을 강조한다. 신앙에서 힘의 척도는 현실적으로는 약함의 척도가 될 뿐이다. 강한 게 강한 게 아닌 것이다. 강할수록 약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믿음이 강할수록 정신은 자유를 잃어간다. 믿음이 강할수록 정신은 허약해진다. 삶의 의지가 약해질수록 고개를 드는 것은 신앙의 싹이다.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 손을 뺄 것이 저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 현세가 힘들어 내세를 원한다. 세상이 지옥 같아 천국 같은 미래를 꿈꾼다. 그런 믿음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좋은 꿈을 꾸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위로라면 위로다. 하지만 그런 신앙 때문에 멸절한 삶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바치고자 한다면 그 책임은 그런 신앙을 품은 자기 자신에게 있을 뿐이다.

삶의 현장을 직시하고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 정말 용기 있는 자만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런 시선은 전사의 눈빛에서 발견된다. 삶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전사의 눈빛이 그런 것이다. 늙음에 맞서 젊음을 쟁취하려는 의지는 끊임없이 신앙을 내칠 때 가능해진다. 앞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잠언을 읽은 적이 있다. 그때 니체는 삶을 “죽음에의 의지를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내치는 것을 의미한다”(101쪽)고 정의한 바 있다. 삶은 삶에 의해서만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삶은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삶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죽음에 의해 보상받는 삶은 없다. 이 허무함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허무함을 받아들이게 될 때 목적으로서의 죽음은 사라지고 삶만이 존재하게 된다. 죽음은 삶이 중단되는 것일 뿐이지 삶의 정반대편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반대편에서 삶을 구원하는 그런 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 이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끊임없이 발목을 잡힌다. 죽음은 인간의 문제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필요로" 한다면 삶이 너무 초라해지고 만다. 하느님 곁에서의 삶이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은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도서1:2)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에 허무로 맞서고자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이 세상, 이 삶, 이 현실을 옹호하고자 한다. 여기를 버린 저기는 무의미함을 가르치고자 한다.

그래서 니체는 그리스도교를 필요로 하는 대륙은 늙었다고 단정한다. "내가 보기에 늙은 유럽 대륙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자기 삶에 주인 의식으로 임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늙은 것이다. 자기 안에 자기를 포기하고 신으로 채우라는 신앙이 사람을 늙게 만든다. 삶을 포기하고 죽음 이후를 영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신앙의 명제"를 "진리"로 여기는 한 청춘은 순식간에 늙은 모습으로 변모하고 말 것이다. 대화를 할 때도 끊임없이 남의 의견으로 생각하는 정신은 늙은 정신이다. 신앙이 사라지고 나면 쓰러지고 마는 "나약한 본능"과 "나약한 감정"(329쪽)으로 아슬아슬하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자기 안에서 외쳐대는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귀가 먹은 늙은이에 불과하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잣대로 삼아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는 일명 행동대장에 불과하다.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남의 의지를 자기 의지로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들음을 외부의 것에서 찾고자 하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만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신을 사랑하는 한 인간은 스스로를 무릎 꿇게 만든다. 춤은 고사하고 걷지도 못하게 만든다. 아니 서지도 못하게 만든다. 자기 삶을 자기 손에서 내칠 때 삶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살고 있어도 삶이 아니라고 느껴질 뿐이다. 삶 자체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만다. 현실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그런 삶을 누가 과연 책임져줄까? 신이? 과연 그럴까? 정말 그렇게 믿는가?

의지가 결여된 곳에서는 언제나 신앙이 가장 커다란 갈망과 가장 긴급한 필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령의 정열인 의지야말로 자기주권과 힘의 결정적인 표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령할 줄 모르는 자는 그만큼 더 간절하게 명령하는 자를, 신, 영주, 신분, 의사, 고해신부, 도그마, 당파적-양심 등처럼 준엄하게 명령하는 자를 갈망한다. 여기서 추론되는 것은 불교와 그리스도교라는 두 세계종교가 생겨나 그리고 급속하게 전파된 원인은 의지의 커다란 질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이 두 종교는 의지의 질병을 통해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를 향한 불합리하고 절망적인 요구에 직면했던 것이다. 두 종교는 의지가 이완된 시대에 열광주의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팀대와 새로운 의욕의 가능성, 의욕의 향유를 제공했다. 요컨대 열광주의야말로 약자들과 불안한 자들도 "의지의 강화"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열광주의는 이제 지배적으로 된 개별적 관점과 감정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 감성과 지성의 전체 체계에 최면을 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 - 그리스도교는 이 열광주의를 자신의 신앙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명령이 내려져야만 한다는 근본적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는 "신앙인"이 된 것이다. 반대로 하나의 정신이 저 신앙, 확실성에의 요구와 결별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실행하여, 가벼운 밧줄과 가능성 위에서도 몸을 바로 세우고 드리워진 심

연 위에서 춤을 추는 자기규정의 기쁨과 힘, 의지의 자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한 정신이야말로 한마디로 자유로운 정신일 것이다. (330쪽 이후)

신앙인과 자유인! 이 대립이 보이는가? 구속된 정신과 자유로운 정신, 이 대립이 보이는가? 무엇이 신앙인의 정신이고 또 무엇이 허무주의의 정신인지 보이는가? 신앙은 스스로 최면을 거는 행위와 같다. 앞서 하나의 산이 그 주변 전체를 매혹적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발생한 믿음에 대해서 논한 바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독자를 위해 그때의 문구를 다시 인용해본다. “이 산은 그것이 거느리고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매혹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을 수백 번 읊조린다면 우리는 터무니없게도 그 산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 이런 매력을 지닌 산이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매혹적인 존재일 것이라고 믿게 된다.”(87쪽) 이게 바로 자기 최면이라고 할까. ‘좋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면 정말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상은 좋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허무주의의 철학은 의지의 철학이다. 자유는 의지의 산물이다. 의지가 끝나는 곳에서 신앙이 시작된다. 명령이 포기되는 곳에서 복종이 시작된다. 의지가 병드는 곳에서 열광주의가 시작된다. 허무주의의 철학은 이런 신앙 이런 복종 이런 열광주의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철학이다. “하나의 정신이 저 신앙, 확실성에의 요구와 결별”할 수 있는 때 허무주의는 실현되는 것이다. 허무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실행하여, 가벼운 밧줄과 가능성 위에서도 몸을 세우고 드리워진 심연 위에서 춤을 추는 자기규정의 기쁨과 힘”을 요구한다.

허무주의는 “의지의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한 철학이다. 니체가 말하는 허무주의적 의지의 자유는 하느님의 뜻 혹은 신의 의지를 전제하는 루터의 자유의지론과 전혀 다른 것이다. 루터식의 구속의 자유는 자유롭다는 최면상태에서 말하는 자유일 뿐이다. 니체가 주장하는 자유정신은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지향한다. 기쁨과 힘이 넘치는 춤을 출 줄 아는 자기규정으로 무장한 자유가 진정한 허무주의적 자유인 것이다. “그러한 정신이야말로 한마디로 자유로운 정신일 것이다.” 허무주의는 이런 정신에 의해 구현될 뿐이다.

자유정신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부터 이미 부각된 허무주의 철학의 핵심 이념이었다. 여기서 니체는 이 자유정신도 초인의 이념처럼 아직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이 자유정신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했던 적도 없다.”(인간적I, 11쪽) 허무주의 철학은 이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철학이다. 앞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만들어가야 하는 미래의 철학인 것이다. 춤추는 자유정신은 오로지 “명령하는 정열인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유정신이 보여주는 춤은 그러니까 의지가 모습을 드러낸 현상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 춤은 의지의 정열적인 표현이다.

이에 반해 “의지가 결여된 곳에서는 언제나 신앙이 가장 커다란 갈망과 가장 긴급한 필요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의지가 끝나면 어김없이 신앙이 시작된다. 의지는 “춤을 추는 자기규정”과 “명령의 정열”이다. 그것은 “자기주권과 힘의 결정적인 표징”이다. 의지가 결여된 자는 이런 자기규정도 자기주권도 포기한 자다. 스스로 명령하는 권리를 포기한 자다. “다시 말해 명령할 줄 모르는 자는 그만큼 더 간절하게 명령하는 자를, 신, 영주, 신분, 의사, 고해신부, 도그마, 당파적-양심 등처럼 준엄하게 명령하는 자를 갈망한다.” 의지가 부족한 자가 신을 요구한다. 삶이 재미없는 자가 천국에서의 삶을 염원한다. 삶이 고통스러운 자가 영생을 꿈꾼다. 스스로 명령할 능력이 부족한 자가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자를 필요로 한다.

니체는 의지의 결여에서 종교적 세계관의 싹을 발견한다. 그는 특히 두 개의 세계종교, 즉 불교와 기독교를 의지의 결여라는 관점에서 비판한다. 그는 “의지의 커다란 질병”이라는 말을 한다. 의지가 병들었을 때 신앙에 불이 붙는다. 이 질병이 이 두 종교를 급속도로 확산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니체는 이 두 종교가 “의지가 이완된 시대 열광주의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열광주의와 허무주의는 정반대의 원리다. 열광주의는 행동대장들이나 보여주는 질병으로서의 열병이다. 열광주의가 보여주는 열광에는 자기주권과 자기규정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반면, 허무주의가 보여주는 허무에는 자유정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열광주의가 강해질수록 그와 함께 “의지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지겠지만 그 의지는 그저 병든 의지일 뿐이다. 즉 열광주의가 강해질수록 의지의 질병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진전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열광주의는 오로지 “약자들과 불안한 자들”에게서 먹혀드는 이념일 뿐이다. 자기 인생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정신이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열광주의에 빠진 의지의 질병은 오로지 허무주의의 자유정신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 의지가 결여된 곳에 의지를 회복시켜야 한다. 명령이 포기된 곳에서 명령을 복귀시켜야 한다. 의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극복이라는 처방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극복! 그것은 다름 아닌 “밀물과 썰물의 새로운 법칙”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6. 도덕의 의복에 길들여진 정신

니체는 처음부터 자기비판을 쏟아내는 철학자였다. 처녀작 《비극의 탄생》 서문 제목으로 그는 〈자기비판의 시도〉라 정했다. 그리고 《즐거운 학문》 바로 이전에 작성된 〈메시나에서의 전원시〉에서는 〈새의 판결〉이라는 시를 통해 시를 쓰고 있는 철학자 자신을 비꼬기도 했다. 늘 한계에 직면해 있고 극복을 시도하려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체의 정신은 늘 불안해 보인다. 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 듯하다. 이쪽에 있으면서 저쪽에서 한쪽 발을 완전하게 빼지 못하고 있다. 왔다 갔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불안과 위기가 의도된 상황이라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그의 불안과 위기는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의 철학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감지하게 된다. 채찍을 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후려치는 철학이라고나 할까. 극복을 해야 할 시점에 그것을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안주하려 할 때 정신은 늙음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다.

도덕은 함께 공존하려 할 때 필요한 덕목으로 제시된다. 도덕은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 도덕 자체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덕 자체도 늘 시대를 거둬들이며 극복을 해야 할 뿐이다. 과거의 것을 지향한다거나 그것을 정답으로 규정하려는 정신은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이런 경향을 허무주의는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가 늙어가고 있구나’하는 인식은 언제 드는가? 그것은 예를 들어 국가가 교과서를 규정하거나 집필하려 할 때다. 국가 권력이 학문의 자유를 허용할 능력이 없을 때다.

늙어버렸다. 어느 특정 견해만이 옳다고 평가하고 다른 의견은 틀렸다고 간주하게 됨으로써 노화의 속도는 한계를 넘어서고 만다. 돌이킬 수 없는 과속이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학자들이 소신껏 학문에 임하지 못하게 하고 학문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권력은 늙은 권력이

다. 충분히 강하지 못해 무균실에서 살고자 하는 허약체질이다. 도덕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된 도덕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 동원된 도덕은 모두 이런 허약체질의 증상을 보인다. 니체의 공격은 자국인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도덕은 어느 정도로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 별거벗은 인간은 일반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 나는 유럽 남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유럽 여자들은 결코 아니다!) 한창 즐거운 연회에서 마술사의 술수로 인해 옷이 벗겨졌다고 가정해보자, 흥이 깨질 뿐만 아니라, 아무리 왕성한 식욕이라도 날아가버릴 것이다, - 우리 유럽인들에게는 의복이라는 가장무도회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덕적 인간"의 변장술, 도덕적 상투어나 예절을 위한 개념들로 몸을 가리는 것, 의무, 덕, 상식, 명예, 자기부정 등과 같은 개념들 아래 우리의 행동을 선의로 숨기는 것도 의복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충분한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인간의 악의와 저열함,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거친 동물이 가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그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길들여진 동물이기 때문에 수줍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도덕이라는 변장술을 필요로 한다, - "내향적 인간"인 유럽인은 오랜 세월 동안 변장을 통해 자신을 "내보일 수 있을" 만큼(이를 통해 아름다워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악하지 못했다, 유럽인들은 도덕 안으로 숨어 자신을 위장한다, 그것은 유럽인들이 병적이고 병약하고 불구인 동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거의 기형아, 반쪽짜리 인간, 악하고 서투른 인간이기 때문에 "길들여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도덕적 위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심각한 범용함과 불안과 권태를 지닌 무리동물이다, 도덕은 유럽인들을 - 이것을 자백하자! - 보다 고상하고, 중요하고, 존경스럽고, "신적인" 존재로 - 분장해주는 것이다, (336쪽 이후)

유럽인이 아닌 상황에서 유럽인을 비판하는 이런 글을 읽으면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인의 입장에서 이런 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또 이런 비판을 내놓는 학자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 어쩌면 《친절한 금자씨》(2005)의 명대사처럼 "니나 잘하세요!"하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격해올 수도 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니체는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포함하여 유럽 대륙 전체를 싸잡아 비판한다. 참으로 용기가 대단하다.

인간은 발가벗으면 부끄러워한다. 훌쩍 벗은 느낌은 수치심을 유발한다. 하지만 이렇게 길들여진 것은 언제부터일까? 참으로 영리한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고대의 도시들을 여행해보면 전혀 다른 감각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동상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조각들이 보여주는 자세들에서 부끄러움이라든가 수치심 따위는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별거벗은 상황에서도 편한 표정과 자세로 일관한다. 오히려 당당함이 묻어 있을 뿐이다. 어찌하여 이런 태도가 가능했던 것일까? 어떤 생각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했을까? 고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도진다. 도대체 언제부터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하고 말이다. 참으로 재미난 질문이다. 아니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대인의 육체에 대한 그런 당당한 모습은 르네상스 시대에나 와서야 다시 유행을 타게 되지만 그것 또한 교회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니체의 문헌

학적 입장에서 수치심의 역사를 추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잠언의 제목을 “도덕은 어느 정도로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라고 정한다. 수치심과 도덕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서 지어진 제목 같다.

사실 육체에 대한 수치심의 역사를 추궁하다 보면 도덕이라는 뿌리에 닿게 됨을 알게 된다. 성경에서도 신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성기를 가렸던 것은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의 사건이었다.¹²⁾ 도덕은 늘 “두 졸스트^{du sollst}”, 즉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330쪽)는 명령과 연결된다. 도덕은 인간이 최소한 지켜야 할 덕목을 알려준다. 대부분의 도덕적 명령은 만연해 있는 경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지각하니까 지각하지 말라고, 흠치니까 흠치지 말라고, 효도 안 하니까 효도 하라고, 간음하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도덕과 함께 양심이라는 것이 또한 생겨난다. 도덕이 생김으로써 양심이 생겨난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될 때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는 인식할 능력이 생긴 것이다. 본인이 벌거벗은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양심의 가책으로 연결된다. 인류는 자신의 몸을 가려야 할 이유를 찾은 것이다. 그때부터 인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들을 위한 도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가장무도회”를 당연하게 간주하면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은 것을 더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벌거벗은 인간은 일반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 나는 유럽 남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유럽 여자들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한참을 머물러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언급될 때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독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니체의 생각과 함께 놀 수 없는 정신은 멈춰 서는 것도 좋다. 도덕은 기득권에 의해 형성된다. 도덕은 기득권을 위한 것이다. 놀이의 규칙도 놓고 싶은 자가 만드는 것이다. 한 사회의 도덕은 그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만든 것이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기득권은 당연히 남성들이다. 과거 거의 모든 도덕은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 이런 논리로 도덕을 들여다보면 “유럽 여자들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에 조금은 수궁이 갈 것이다.

옷으로 자기 자신을 가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옷을 필요로 한 것처럼 도덕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유럽인들에게는 의복이라는 가장무도회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덕적 인간’의 변장술, 도덕적 상투어나 예절을 위한 개념들로 몸을 가리는 것, 의무, 덕, 상식, 명예, 자기부정 등과 같은 개념들 아래 우리의 행동을 선의로 숨기는 것도 의복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충분한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니체의 의혹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도덕을 필요로 하는 인간은 숨겨야 할 게 많은 인간이다. 악의를 선의로 위장할 필요가 있는 인간이다. 착하다 혹은 선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도덕성을 부각시킨다. 도덕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악한 사람이 도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도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말 잘 듣는 사람이 도덕적이라는 얘기다. 복종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도덕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삶에는 거의 무기력할 때가 많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은 챙기지 못하고 늘 타인의 삶에 얽매여 살아갈

12) “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3:7) 이에 대한 해석은 참고, 이동용: 쇼펜하우어, 돌이 벌이 되는 철학, 위의 책, 269쪽 이후.

뿐이다.

“도덕적 인간”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은 당연히 교육을 통해서다. “우리 인간은 길들여진 동물이기 때문에 수줍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도덕이라는 변장술을 필요로 한다.” 도덕적인 인간은 그래서 당당해야 할 권리를 이양 받는다. 그의 당당함은 남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일 뿐이다. 또 주변에서 인정하는 당당함이다. 그 사람은 그래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 인간은 사회의 통념에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간다. 도덕이라는 옷으로 변장하며 일상을 살아간다.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남의 눈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의복이라는 가장무도회가 도덕적 인간에게는 바로 인생이다. 그 가장무도회에 충실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다. 선한 것이다. 결국 그런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악한 행동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향적 인간’인 유럽인은 오랜 세월 동안 변장을 통해 자신을 ‘내보일 수 있을’ 만큼(이를 통해 아름다워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악하지 못했다.” 지극히 허무주의적이다. 니체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런 말을 가지고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 ‘아름다워질 수 있을 만큼 사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사악해야 한다! 선해서는 절대로 아름다움을 과시하지 못한다. 선한 상태로서는 옷이 보여주는 상징성만을 과시할 뿐이기 때문이다.

옷을 입으면 몸이 안 보인다. 옷을 입으면 그 옷의 외형만을 본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상품인지 얼마짜리인지 등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이런 의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덕이다.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주변사람들은 그의 이런 행동만을 주시한다. 도덕적 인간은 도덕적 행위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그 위장에 익숙해져 간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자신의 모습조차 망각해간다. “그것은 유럽인들이 병적이고 병약하고 불구인 동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의지의 커다란 질병”(330쪽)이 생긴 것이다.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심을 느끼는 것처럼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당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늘 남의 눈치만 살피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 늘 남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의 질병이다.

“유럽인들은 거의 기형아, 반쪽짜리 인간, 약하고 서투른 인간이기 때문에 ‘길들여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니체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한다. 격앙되어 있다는 증거다. 이토록 길들여진 인간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무슨 소리를 해도 자신의 이성이라는 거울에는 왜곡된 채 비칠 뿐이다. 이성의 거미줄에 걸리는 것들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소리들뿐이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듣는다”(231쪽)고 했다. 그 외의 거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전하지 못하고 사라져만 간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아직 배울 준비가 안 된 것일까? 아직 때가 안 된 것일까?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힘을 차리고 다시 말을 이어간다. “도덕적 위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심각한 범용함과 불안과 권태를 지닌 무리동물이다.” 도덕적 인간은 무리동물이다.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존재다. 앞서 “무리 본능”(192쪽)이란 잠언을 읽은 적이 있다. 거기서 니체는 “도덕에 의해 개인들은 집단의 기능이 되고, 또 오로지 기능으로서만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도록 인도된다”고 주장했었다. 즉 “도덕성이란 개인들 속의 무리 본능”(192쪽 이후)이라는 얘기다.

도덕의 힘은 대단하다. ‘마땅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할 수 있다. 헬스장이나 사우나에서 우리는 옷을 벗고 활보한다. 훌쩍 벗은 상태에서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말리기도 한다. 남이 보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또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이런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그래도 된다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도덕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만 그것은 오로지 무리본능에 얽매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자백을 유도한다. “도덕은 유럽인들을 - 이것을 자백하자! - 보다 고상하고, 중요하고, 존경스럽고, ‘신적인’ 존재로 - 분장해주는 것이다.” 제발 좀 그렇다고 솔직하게 자백하자! 도덕이 도덕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라고. 웃이 웃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고.

게다가 도덕은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 분장해주는 것”이란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니체는 이 문장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명령한 자와 동등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의 명령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따르면 신까지도 자기편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신이 자기편이라는 의식의 영향력은 무섭다. 자기편이 아닌 것은 모두가 자동적으로 나쁜 편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의 유치한 편가르기 같다. 우리편 아니면 나쁜편! 하지만 그 유치함은 잔인함이 겸비되면서 무서운 것이 되고 만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길들여진 ‘무리동물’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대로 ‘무서운 맹수’를 지향한다. 스스로 아름다움을 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악’한 존재를 원한다. 자기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도덕적 잣대로 보면 사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사악함에 당당하자는 것이다. 무리 속에 휩쓸려 유행 따라 살다가 병원에서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 그런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보다 고생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육체여, 너는 떨고 있는가?”^(315쪽) 이 질문을 자신에게 솔직하게 해보자. 무리동물에서 벗어나 무서운 맹수의 운명으로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맹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7. 정신의 혁명을 위하여

바꾸려면 바뀌야 할 이유가 충분해야 한다. 이유가 충분히 의식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심의 가책 없이 바꿀 수 있다. 배움이라는 자세도 이런 이유가 충분할 때 가능해진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으면 기존의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낯선 생각을 혹은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 준비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에서만 가능해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배움은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다.

과거에 배운 것에 얽매어 있는 한 새로운 배움은 불가능해진다. 과거의 것에 얽매어 있는 한 현재는 늘 과거의 그늘이 되고 만다. 미래를 위한 빛으로는 전환되지 못한다.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태양의 눈으로는 바뀔 수가 없다.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으려 했던 정신을 니체는 쇼펜하우어에게서 발견했다. 염세주의 철학은 기존의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 없이 등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철학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인간의 실존에는 도대체 의미가 있는가? - 이 질문은 완전하게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 들리는 데만도 수세기가 필요하다. 이 질문에 대한 쇼펜하우어 자신의 대답은 - 나를 용서하기를 빈다 - 조금하고 미숙한 것이었고, 일종의 타협이었으며, 신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그 믿음도 철회된 그리스도교의 금욕적 도덕관에 머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물음을 제기했다. ^(351쪽)

쇼펜하우어는 선구자였다. “인간의 실존에는 도대체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염세주의 철학의 중심에는 삶이 있었다. 인생이 있었다. 인간이 철학의 주인공이었다. 생철학의 장을 연 것이다. 니체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처음 읽었을 때 귀신의 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라”¹³⁾고. 첫눈에 반한 그런 만남이었다. 첫 만남에 ‘이 사람이다!’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게 바로 운명적 만남이다. 삶의 가치를 추궁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하나가 된 것이다.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는 한 목소리가 된 것이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그 자체로서 완전할 수는 없었다. 니체의 눈에는 한계가 보였던 것이다. 처녀작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이미 그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실존의 가치에 관한 커다란 물음표”와 함께 “강함의 염세주의”(비극, 10쪽)를 추궁했던 것이다. 세상을 등지고 해탈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등지면서도 “긍정의 인간”(102쪽)이 될 수 있는 그런 강한 인간을 동경했던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홀로 서기가 가능해질 때 모든 것은 다시 돌아와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한다! 괜찮아!’라는 말을. 괜찮다는 말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말이다. 이 세상 모든 개개인이 이런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니체가 그토록 염원하고 동경하는 이상향도 멀리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쇼펜하우어의 업적은 기릴 만하다. 비록 허약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은근과 끈기를 민족성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만큼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고행, 즉 금욕고행을 요구하는 “금욕적 도덕관”은 나름대로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비록 스스로 맹수가 되지 못하는 순한 양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철학도 존재해야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를 “끊임없는 살인자”(101쪽)로 내모는 ‘살인의 원칙’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쇼펜하우어의 글들을 읽으면서 길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니체처럼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염세주의와는 인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때는 허무주의가 약이 될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등지면서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비결을 배워보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허무를 받아들이면서도 허무를 극복해내는 비결을 배워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진전은 수세기가 걸릴 수 있다. 지금 독서를 하면서도 많은 것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정신이 있을 것이다. “이성과 혀는 자주 걸려 넘어지지!”^(10쪽)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여유롭게! 여유롭게!”^(39쪽) ‘뭐든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욕심일랑 부리지 말자!’고. “아름다움이라는 느린 화살”^(인간적I, 170쪽)의 속도를 따라가자고.

니체는 《아침놀》에서 도덕과의 한판 승부를 외쳤다. 도덕과의 전쟁을 선포했었다. 그리고 지금 《즐거운 학문》에서 도덕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 특히 기독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유럽을 “늙은 유럽”^(329쪽)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늙은 대륙에게 청춘을 되돌려주고자 한다. 젊음을 되찾고자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회춘^{回春}을 준비하고 있다. 허무주의 철학은 회춘의 철학이다. 정신에 혁명을 이끌고자 한다.

13) , 이동용: 니체와 함께 춤을, 위의 책, 40쪽.

정신의 농민혁명. - 우리 유럽인들은 세계가 거대한 폐허가 되어가는 광경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몇 가지 것들은 아직 우뚝 솟아 있지만, 많은 것들은 썩어가고 으스스한 모습으로 서 있으며, 대부분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림 같은 풍경에 - 이보다 더 아름다운 폐허가 일찍이 어디에 있었는가? - 크고 작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덮여 있다. 교회가 이 몰락의 도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적 사회가 최하부의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신에 대한 믿음은 무너지고, 그리스도교의 금욕적 이상은 그 최후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도교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완벽하게 건립된 건축물이 - 이것은 로마인들의 최후의 건축이었다! - 단번에 파괴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유형의 지진이 그 건축물을 흔들어대고, 모든 유형의 정신이 구멍을 뚫고, 땅을 파내고, 갇아먹고, 습기로 적시며 힘을 보태야만 했다. (353쪽)

혁명이 일어나려면 쌓여야 한다. 마치 번개가 치려면 구름이 모여야 하듯이. 화산이 터지면 가스가 축적되어야 하듯이. 니체는 우리의 존재를 활화산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숨겨진 정원과 식물을 갖고 있다. 달리 비유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분출하게 될 활화산이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가까운 시간에 혹은 먼 후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신조차도." (79쪽) 언젠가는 뜨거운 용암을 뿜어내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하다.

유럽은 늙었다. 유럽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이념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니체의 눈은 폐허로 변해가는 도시를 응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몰락의 도시"라고 증언한다. "신에 대한 믿음은 무너지고, 그리스도교의 금욕적 이상은 그 최후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처참한 발악을 하고 있다. 신앙적 독재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중세의 병하" (반시대Ⅲ, 427쪽)는 이제 녹아내리고 있다. 그 병하에 갇혀 있던 것들이 자유를 획득해내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수세기가 걸렸다. "인간의 실존에는 도대체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제대로 듣는 데만도 "수세기가 필요" (351쪽) 했다. 뜨거운 용암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오랜 후에, 아마도 수세기가 흐른 후에" (79쪽) 나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젊은 사람은 채찍질을 당해왔" (반시대Ⅲ, 348쪽) 기 때문이다. "길들여진 동물" (337쪽) 이 되어 청춘을 망각한 채 성실이라는 미덕으로 말 잘 듣는 애늙은이처럼 살아왔다. 신은 죽었지만 "그의 그림자" (183쪽)는 수세기 동안 위협적인 존재로 군림했다.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최후의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니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예를 들어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5)라는 영화에서처럼 폐허가 된 교회에서 들리지 않는 종소리와 함께 수많은 질문들이 아직도 여전히 던져지고 있다. "그리스도교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완벽하게 건립된 건축물이 - 이것은 로마인들의 최후의 건축이었다! - 단번에 파괴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다." 혁명은 쉽게 오지 않는다. 변화는 수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 희생을 감수할 용기와 결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힘을 보태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실존에는 도대체 의미가 있는가?" (351쪽) 다시 한번 새겨들자. 신의 죽음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철학이 던지는 질문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자.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반드시 그 의미를 찾아내야만 한다. 그것이 삶에 대한 예의다. 운명을 타고난 존재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아모르 파티! 사랑해야 할 순간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정언명법이다.